

# postcard



**미술 램프의 요정 달지니** 인간 자료실, 걸어 다니는 컴퓨터, 금요일의 사나이. 혹 떠오르는  
이가 있는가? 그렇다. 이번 포스트카드의 주인공은 김달진 소장, 두둥! 한국 근현대미술의  
주춧돌, 대형 기관에서의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김달진미술자료연구소 개소.... 뭐  
이런 흔한 말은 과감히 빼고, 미술계 ‘패피’로서의 면면을 파헤치겠다. 우선 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려본다. 말쑥한 체구, 유려피안 감성의 은빛 머리칼, 톡톡 튀는 패션. 더운  
여름엔 귀여운 프린트의 새빨간 티셔츠를 생지 데님과 매치하고, 자색 슈트에는 올해의  
컬러인 일루미네이팅 넥타이를 선택하는 센스도 겸비했다. ‘잇 포인트’ 브로치와 넥타이  
컬렉션만 나열해도 하루를 꼬박 새워야 할 지경이다. 거기에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포켓  
벨트까지! ‘작은’ 김달진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최애’ 아이템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감이 확실하다. 유튜버로 또 하나의 직업을 추가한 이후로는 정체불명의 안경까지  
섭렵하며 21세기, 아니 23세기까지도 거뜬할 패션을 선도한다. 인스타그램(@daljin.kim)과  
유튜브 채널 <김달진>의 ‘김달진이 가다’,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 ‘With Artist’의 콘텐츠와  
함께,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급으로 업로드하는 미술계 속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소장의 패션 센스는 구독자의 구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 그에게는  
특유의 ‘서타일’이 있다. 일명 미술계 성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들 사이에서도  
김달진은 독보적인 성골이다. 그러나 요즘은 hip의 시대가 아닌가. 그는 ‘그냥 성골’도  
아니고 ‘힙한 성덕’이다.